

## ‘부적응적 자기초점화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정 승 아<sup>†</sup> 오 경 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사회불안을 유발하거나 유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변인으로서 부적응적인 자기초점화경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사회불안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들의 면담자료나 치료과정에서 수집한 자기기술 자료, 심리평가 자료, 그리고 기존의 사회불안 관련 척도들을 검토하여 28문항을 예비문항으로 선정하였다. 대학생 425명을 대상으로 예비문항을 실시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최종 23문항을 확정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반추, 타인의식, 자기몰입의 세 가지 하위 요인이 드러났으며, 내적 합치도 계수도(Cronbach의  $\alpha$ 도 .92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타당도 측정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사회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자기의식 경향의 측정치로서 기존에 사용되어온 자기의식척도(SCS)가 가진 불충분한 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척도임을 보여준다.

주요어 : 부적응적 자기초점화 척도, 자기의식척도, 사회불안

---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정 승 아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31-10 청진빌딩 402  
TEL : 02-517-8203 / E-mail : jungsa@hanafos.com

자기초점화(self-focused attention)는 주의(attention)의 방향성과 관련된 개념이며 주의가 외부세계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용의 내향성-외향성 개념과 마찬가지로 자기초점화 성향 자체가 병리적인 것은 아니며, 자기의식 성향이 높으면 심리적 통찰능력(psychological mindedness)이 높고, 자기노출을 증가시켜 이성관계 만족도를 높여주고, 자신의 성격판단에 더 객관적이고 더 높은 자기개념 일관성을 보여주며 자기개념의 안정감을 높여 준다 등의 연구 결과는 오히려 자기의식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 준다(Buss, 1980; Davies, 1994; Farber, 1989; Franzoi, Davis, & Young, 1985; Kernis & Grannemann, 1988).

그러나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자기초점화 성향이 정도가 심한 지속적인 성격 경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외부의 자극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만성적인 부적응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더 지배적이다. 과거에는 이것이 주로 우울증을 유발하고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설명되어 왔다(Gibbons, Smith, Ingram, Pearce, Brehm, & Schroeder, 1985; Hull, Young & Jouriles, 1986; Larson & Cowan, 1988; Pyszczynski & Greenberg, 1985; Smith & Greenberg, 1981). 그러나 Ingram(1990)은 과도한 자기 의식이 우울증 뿐 아니라 불안장애, 알콜중독, 그리고 정신분열증과 같은 다양한 정신병리와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자기초점화 경향이 사회불안의 유발과 지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Clark와 Wells(1995)는, 사회 공포증 환자들이 사회적 상황에 직면할 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인지적 변화는 “주의의 초점이 변하는 것(a shift in attentional focus)”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사회공포증 환자들의 치료

효과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자기초점화 주의가 완화되는 것이 결정적 치료적 요인임을 시사하는 연구도 있다(Butler, 2001; Hofmann, 2000; Wells, & Papageorgiou, 2001; Woody, Chambless, & Glass, 1997).

자기초점화된 주의가 사회공포증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밝혀 보려는 기존의 실험실 연구들은 자기의식을 ‘주의(attention)’라는 관점에서 인지적 과정의 한 부분으로 보고 그 영향을 분석한 결과들이다. 따라서 자기의식을 하나의 인지적 과정(process)이나 일시적인 상태(state)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 결과를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과연 사회공포증 환자들이 자기의식 경향성이 높은지, 자기의식과 관련된 어떤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점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성향으로서의 자기초점화 혹은 자기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기의식 성향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도구로는 Fenigstein, Scheier와 Buss(1975)의 ‘자기의식 척도(self consciousness scale: 이하 SCS척도라 함.)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척도는 본래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되었으며, 병리적 성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인지적 측면보다는 일반적인 성격특성의 하나로서 자기의식 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더구나 SCS척도의 하위 척도인 사적 자기의식 척도(private self consciousness scale)는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보일 수 있는 부적응적인 인지적 메커니즘과 상관관계가 없거나 낮다는 연구결과가 많다(Bruch, Hamer & Heimberg, 1995; Edelman, 1985; Hope & Heimberg, 1988; Nilly & Jennifer, 2002). 일찍이 Christensen(1982)은 임상적 유용성의 측면에서 SCS척도가 가진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부적응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부적응적 자기의식 척도(SCON)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 척도는 어떤 특

정한 사회적 상황을 미리 제시해 주고 그 상황에서 얼마나 '자기의식'을 느끼는지 측정하는 것으로, '자기의식'이 무엇인지에 관해 평가자가 미리 길게 설명하고 정의해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공포증 환자들이 보이는 다양한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는 자기의식의 부정적인 측면, 즉 주의나 의식이 외부가 아닌 내부로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외부의 자극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적절한 사회적 적응을 위해 필요한 폭넓고 유연한 사회적 정보처리 과정을 방해하는 변인으로서 '부적응적 자기초점화 경향'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병리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의 척도를 번역하는 수준에서 사용하기에는 사회공포증이나 여타 병리적 증상의 속성을 연구하는데 타당도가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실제 임상집단 피검자의 자료를 근거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더구나 최근에는 자기의식의 하위 차원이 기존의 척도로 측정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거나 자기의식의 특정한 속성이 특정한 정신병리와 관련될 수 있다는 연구가 등장하고 있듯이(Ruiperez & Belloch, 2003), 본 연구에서 개발하려는 자기의식 척도 뿐 아니라 자기의식의 다양한 병리적 측면을 탐색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척도들을 제작해 볼 필요가 있다.

## 방 법

### 예비문항 선정과정

'부적응적 자기초점화 척도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Scale: 이하 MSFAS척도)에 포함

될 문항의 성격을 미리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정의하였다. 첫째,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 중에서 주로 자기의식 성향과 관련된 인지적 과정을 반영하는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둘째, 일시적인 '상태'가 아닌 어떤 '성향'이나 '습관'을 기술하는 문항을 만들고자 하였다. 셋째, 일반적인 성격특성으로서의 자기의식 성향이 아니라 보다 분명한 부적응적 인지과정을 나타내는 문항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회공포증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자료를 통해 문항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문항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 사회불안을 주소로 내원하여 사회공포증이란 진단 하에 치료과정에 있거나 치료를 마친 내담자 84명의 심리평가 자료, 면담과 치료과정에서 수집된 자기 기술 정보를 토대로 30개의 예비문항을 선정한 후 내용상 의미가 중복된 문항들로 압축하여 최종 17개의 문항을 작성하였다. 이에 덧붙여 Trapnell과 Campbell (1999)이 제작한 반추내성 질문지(RRQ: rumination-reflection questionnaire)의 반추척도(rumination scale) 12문항 중 앞서 선정한 문항과 내용 중복이 되지 않으면서도 미리 정의한 기준에 부합된다고 판단된 8문항을 선정하였다. 또한 Woody, Chambless와 Glass (1997)가 '상태'로서의 주의초점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질문지(FAQ: Focus of Attention Questionnaire) 중 '자기초점화 척도(self-focused attention questionnaire) 5문항 중에서 2문항을 같은 방식으로 선정하여 '성향'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문장을 수정하여 첨가하였다. 이 밖에도 Mattick과 Clarke(1998)의 '사회공포증 척도(SPS)'의 내용 중 위의 기준에 적합한 한 문항을 수정하여 첨가하였고, 이렇게 하여 총 28문항이 최종적인 예비 문항으로 선정되었다.

## 대상

심리학 개론과 심리학 관련 교양수업을 듣는 대학생 428명에게 예비적으로 구성된 MSFAS척도가 포함된 설문 패키지를 나누어주고 응답하게 하였다. 이중 누락된 응답이 전체 문항의 50%가 넘는 3명을 제외한 425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성비를 보면 남자 258명(60.7%) 여자 167명(39.3%)으로 남자가 더 많았다. 전체 연령 평균은 20.5세( $SD = 2.33$ )였고, 남자는 20.9세( $SD = 2.57$ ), 여자는 19.9세( $SD = 1.74$ )로 성별에 따라 연령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 $t = 4.63(424), p < .001$ ].

## 도구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을 초래하는 인지적 성향으로서의 부적응적 자기초점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타당도 평가를 위해서는 사회불안의 정도를 측정하는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K-SAD)',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K-FNE)'가 일차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자기의식 성향을 측정하는 기존의 평가도구인 SCS척도와 비교검토 역시 필요하며, 변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자기의식의 몇 가지 측면 중 사회불안과는 상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반추-내성 질문지(RRQ)' 중의 '내성' 하위 척도(reflection scale)를 포함하였다. 또한 부적응적 자기의식 경향성은 일반적인 성격특성으로서의 '특성불안'과도 관련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태불안까지도 포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태-특성불안 척도를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자기제시이론'에 의하면 자존감과 자기제시 동기 사이의 불일치(discrepancy)는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두 가지 핵심 요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자기의식은 자기평가 상태를 극대화시켜 자기불일치를 증가시킨다는 Duval과 Wicklund(1972)의 견해를 따라 자존감과 자기제시 동기를 측정하는 척도를 가외로 포함시켰다.

### 자기의식척도(SCS; Self Consciousness Scale)

23문항으로 구성된 Fenigstein 등(1975)의 원 척도를 Scheier와 Carver(1985)가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적합하도록 개정된 22문항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원래 척도는 4점 척도(0점-3점)로 되어 있으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5점 척도(1점-5점)로 수정하였다. 개정된 이 척도는 공격 자기의식을 측정하는 7문항, 사적 자기의식을 측정하는 9문항, 그리고 사회불안을 측정하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의  $\alpha$ )는 사적 자기의식이 .79, 공격 자기의식이 .83, 사회불안이 .79로 원 척도와 거의 유사하였다.

### 내성 척도(Reflection scale, Rumination-Reflection Questionnaire 중에서)

Trapnell과 Campbell (1999)이 제작한 24문항의 반추-내성척도(RRQ) 중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성(reflection)' 척도 12문항만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RRQ는 '자기의식' 경향성을 의식의 대상이나 속성이 아닌 의식에 내재된 동기의 차원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각각 '호기심(curiosity)'에 바탕을 둔 내성척도와 '두려움(fear)'에 바탕을 둔 반추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반추와 내성이 모두 '자기의식'의 한 측면이기는 하지만 동기적으로 서로 구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부적응적 자기의식과 '내성' 척도는 상관관계가 낮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성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의  $\alpha$ )는 .93이었다.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K-SAD: Korean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이정윤과 최정훈(1997)의 타당화 연구과정을 거친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K-SAD)로,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의  $\alpha$ )는 .91-.92였고, 4주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8이었다. 이 척도는 Watson과 Friend가 1969년에 제작한 진위형 척도인데, 5점 척도로 수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의  $\alpha$ )는 .93이었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척도(K-FNE: Korean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이정윤과 최정훈(1997)의 타당화 연구과정을 거친 한국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이다.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의  $\alpha$ )는 .89-.90이었고 4주 간격의 검사 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8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의  $\alpha$ )는 .89였다.

**자존감 척도(SES: Self-Esteem Scale)**

전병제(1974)가 번안하여 타당화 과정을 거친 척도이다. 이 척도는 4점 척도이며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의  $\alpha$ )는 .79-.83으로 보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의  $\alpha$ )는 .84였다.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김정택(1978)이 번안한 STA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검사 당시의 상태로써 불안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20문항과 평소에 얼마나 불안해지는 경향이 있는지 측정하는 2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4점 척도(1점-4점)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의  $\alpha$ )는 특성불안 하위 척도는 .89, 상태불안 하위 척도는 .92였다.

**자기제시동기척도(SPMS: Self Presentation Motivation Scale)**

Leary와 Kowalski(1995)의 자기제시 이론에 근거하여 성향적 자기제시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김남재(1998)가 제작한 27문항의 척도이다. 이 척도는 대인관계 상황에서 타인에게 좋은 평가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지 측정한다. 5점 척도(1-5)로 평정하며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의  $\alpha$ )는 .93,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4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96이었다.

**결 과**

**요인구조**

먼저 예비문항으로 선정된 MSFAS 척도 28문항의 요인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사용하였고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회전 방법은 사각회전(direct oblimin, delta=0) 방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고유치(eigenvalue)가 1이상인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이들 6개 요인이 전체 변량의 60.3%를 설명하였다. 우선, Scree 검사결과 세 개의 요인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들 6개 요인에 순수하게 관련된 각 문항의 요인적재량을 나타낸 행렬표(pattern matrix)와 문항-총점간 상관계수를 검토해 본 결

과, 역시 3개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각각의 요인에 대한 적재량이 .35 미만으로 낮은 문(1,12,14,27번), 공통분(communality)이 .40 미만인 문항(1,3,8,16,23,24,27,28번), 요인적재량이 2개 이상의 요인에 중첩되어 있는 문항(1,8,12,13,14,16,17,20,25,27번), 그리고 문항 총점간 상관 계수가 .50미만인 문항들(1,3,8,16,23,24,25,28번)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문항 내용의 중복이나 각 요인별 문항 수를 고려하여 5개의 문항(1, 12, 13, 24, 28번)을 삭제하였다. 이렇게 해서 최종 선정된 23문항으로 3개의 요인을 지정하여 다시 동일한 방법에 의해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이미 끝나버린 일을 다시 반복해서 생각하곤 한다’(문항 3), ‘나는 원치 않는 생각을 마음 속에서 지워 버리기가 쉽지 않다’(문항4)와 같은 9개의 문항들로 구성되며, ‘반추’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나의 표정, 말투, 행동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이다’(문항14),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것저것 자주 생각하곤 한다’(문항12)와 같은 9개의 문항들이 포함되며, ‘타인의식’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나는 남들 앞에서 나 자신을 속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문항 19), ‘나는 마음이 너무 복잡한 사람인 것 같다’(문항 18)와 같은 5개의 문항을 포함하며, ‘자기 몰입’으로 명명하였다.

### 신뢰도

최종 선정된 23문항에 대한 성별 그리고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평균 점수를 보면, 각 하위 척도와 전체 척도의 점수 평균에 있어서 남녀간에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각 요인별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의  $\alpha$ )값을 보면, 반추 요인이 .89, 타인의식 요인이 .87, 자기 몰입 요인은 .74로 나타나고 있는데 각 요인이 5-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감안할 때 비교적 높은 내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문항의  $\alpha$ 값은 .92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 타당도

MSFAS 척도의 각 하위 척도 및 전체 척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다른 척도들간의 상관 계수 행렬은 표 2에, 부적응적 자기초점화 척도의 세 가지 하위 요인간의 상관행렬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우선, 표 2의 상관 행렬표를 보면, MSFAS 척도의 총점은 기존의 이론이나 연구들에서 사회불안의 측정치로 사용되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FNE),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SAD)와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또한 특성불안(TAN) 및 상태불안(SAN) 척도, 자기제시동기척도(SPMS) 척도들과 모두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

표 1. MSFAS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척도	남자(n=258)	여자(n=167)	전체 (N=425)	t
반추	29.34(6.64)	29.42(6.68)	29.37(6.65)	.12
타인의식	30.03(6.39)	30.82(5.91)	30.34(6.21)	1.28
자기몰입	14.89(4.09)	14.64(3.99)	14.79(4.05)	-.623
전체점수	74.27(14.75)	74.89(13.86)	74.51(14.40)	.43

표 2. MSFAS척도와 다른 척도들간의 상관

		SCS				FNE	SAD	SES	TAN	SAN	SPMS	REF
		PRS	PBS	SA	총점							
M	반 추	.34***	.45***	.44***	.55***	.57***	.36***	-.41***	.57***	.45***	.40***	.09
S	타인의식	.53***	.76***	.30***	.72***	.68***	.23***	-.27***	.41***	.32***	.63***	.22***
F	자기몰입	.51***	.41***	.39***	.60***	.47***	.37***	-.45***	.54***	.49***	.34***	.34***
A	총점	.53***	.65***	.44***	.73***	.69***	.37***	-.43***	.59***	.48***	.55***	.23**

\* p<.05, \*\* p<.01, \*\*\* p<.001

SCS: 자기의식척도, PRS: 사적 자기의식, PBS: 공적 자기의식, SA: 사회불안, FNE: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SAD: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 SES: 자존감 척도, TAN: 특성불안척도, SAN: 상태불안 척도, SPMS: 자기제시동기척도 REF: 내성 척도

표 3. MSFAS 척도의 하위 척도들간의 상관

	반추	타인의식	자기몰입
반 추			
타인의식	.60		
자기몰입	.54	.59	

다. 반면에 변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용된 내성 척도(REF)와는 의미 있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으며 다른 하위척도와의 상관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MSFAS척도와 SCS척도와의 총점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73으로 상당히 높아서 총점만 보면 이들 두 척도가 공유하는 속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두 척도의 하위 척도들간의 상관

관계는 .30-.76으로 그 변이가 크다. 또한 MSFAS 척도의 모든 하위 척도와 자존감 척도(SES)와는 일관되게 의미 있는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SCS척도의 하위 척도들과 자존감 척도와의 상관관계가 별로 일관성을 나타내지 않는 점은 두 척도의 차별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편, 비교를 위해 기존의 SCS척도와 다른 사회불안 관련 척도와의 상관계수 행렬표를 별도로 표 4에 요약해 보았다. 이 표를 보면 SCS척도 역시 사회불안과 관련된 변인을 측정하는 다양한 척도점수와 모두 의미 있는 상관을 보이고 있다. 다만 하위 척도들 중 사적자유의식 척도(PRS)는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거나 주관적인 불편함

표 4. 자기의식 척도(SCS)와 다른 척도들간의 상관

		FNE	SAD	SES	TAN	SAN	SPMS	REF
S	PRS	.23***	.06	-.04	.17***	.13**	.31**	.62**
	PBS	.66**	.12*	-.18***	.32***	.20***	.67***	.12*
C	S A	.43**	.75**	-.50**	.56**	.48**	.17**	-.03
S	총점	.59***	.41***	-.31***	.46***	.36***	.52***	.36***

을 측정하는 척도(SAD)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척도들과도 상대적으로 그 상관관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적 자기의식 척도와 자존감 척도와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논 의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척도의 신뢰도는 비교적 만족스럽다 할 수 있으나 타당도 평가 결과는 그렇지 못한 점이 많았다. 우선, 기존의 SCS 척도에 비해서 다양한 사회불안의 측정치들과 더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변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용된 REF척도와의 하위 척도별로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거나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어느 정도 타당도를 입증해 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총점을 비교해 보면 기존의 SCS척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SCS의 사적 자기의식 하위 척도를 제외한다면 대체로 유사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MSFAS 척도는 다양한 사회불안의 측정치 뿐 아니라, 특성, 상태불안 척도, 자존감척도, 자기제시 동기 척도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사회불안의 증상이나 행동적 측면을 측정하는 SAD척도와의 상관관계는 .23-.37로 다른 척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불안에 특정적으로 적용하는 부적응적인 인지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사회불안 자체가 다른 우울이나 다른 불안장애와 공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지, 아니면 MSFAS척도가 사회불안을 직접 초래하기보다는 중간에서 매개하는 간접적

인 인지적 성향을 측정하기 때문인지는 분명치 않다. 이러한 이론적인 구성 타당도 검증작업을 위한 후속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MSFAS 척도가 사회불안과 관련된 측정치들과 높은 상관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것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결과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가장 큰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역기능적이고 부적응적인 인지과정을 측정하고자 하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했던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약점이 될 수 있다. 하나의 도구가 충분한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도구가 사용된 다양한 후속 연구들로부터 나온 자료의 누적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가 그러한 불충분한 점을 갖춘 하나의 예비적 연구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컨대, 자기의식 성향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참고해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했던 척도는 사회불안뿐 아니라 다양한 정신병리를 매개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높고, 또 사회불안만이 아닌 다른 정신병리와의 연결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잠재된 부적응적 인지성향을 측정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다양한 임상집단을 사용한 후속적인 타당도 검증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남재 (1998). 대인불안에 대한 자기 제시 동기와 자기 제시 기대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택 (1978).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윤, 최정훈 (1997).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 (K-SAD, K-FNE)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251-264.
- 전병제 (1974). 자아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 107-130.
- Bruch, M. A., Hamer, R. J. & Heimberg, R. G. (1995). Shyness and, public self consciousness: Additive or interactive relation with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4, 561-571.
- Buss, A. (1980).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anxiety* (pp.19-22). San Francisco: W.H.Freeman.
- Butler, G. (2001). *Overcoming Social Anxiety and Shyness: A Self-Help Guide Using Cognitive Behavioral Techniques* (pp.145-160). New York University Press.
- Christensen, D. (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sciousness and interpersonal effectiveness and a new scale to measure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conscious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 177-188.
-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In R.G. Heimberg, M.R. Liebowitz, D.A. Hope, & F.R. Schneier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pp.69-84). New York: Guilford Press.
- Davies, M. F. (1994).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the perceived accuracy of true and false personality feedback.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 697-701.
- Duval, S., & Wicklund, R. A. (1972). *A theory of objective self-awareness*, New York: Academic Press.
- Edelmann, R. J. (1985). Individual differences in embarrassment: Self-consciousness, self-monitoring and embarrassabi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 223-230.
- Farber, B. A. (1989). Psychological mindedness: can there be too much of a good thing? *Psychotherapy*, 26, 210-216.
-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522-527.
- Franzoi, S. L., Davis, M. H., & Young, R. D. (1985). The effects of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perspective taking on satisfaction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584-1594.
- Gibbons, F. X., Smith, T. W., Ingram, R. E., Pearce, K., Brehm, S. S., & Schroeder, D. J. (1985). Self-awareness and self-confrontation: Effects of self-focused attention on members of clinical po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 19-30.
- Hofmann, S. G. (2000). Self-focused attention before and after treatment of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 717-725.
- Hope, D. A. & Heimberg, R. G. (1988).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phobia.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626-639.
- Hull, J. G., Young, R. D., & Jouriles, E. (1986). Applications of the self-awareness model of alcohol consumption: predicting patterns of use and abu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790-796.
- Ingram, R. E. (1990). Self-focused attention in clinical disorders: Review and conceptual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07, 156-176.
- Kernis, M. H., & Grannemann, B. D. (1988).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perceptions of self-consistenc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 897-902.

- Larsen, R. J., & Cowan, G. S. (1988). Internal focus of attention and depression: A study of daily experience. *Motivation and Emotion*, 12, 237-249.
- Mattick, R. P., & Clarke, J. C.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of social phobia scrutiny fear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 455-470.
- Nilly, M. & Jennifer, W. (2002). Self-focused attention and negative affect: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8, 638-662.
- Pyszczynski, T., & Greenberg, J. (1985). Depression and preference for self-focusing sty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066-1075.
- Ruiperez, M. A., & Belloch, A. (2003). Dimensions of the self-consciousness scale and their relationship with psychopathological indicato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 829-841.
- Scheier, M. F., & Carver, C. S. (1985). The Self-Consciousness Scale: A revised version for use with the general popula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5, 687-699.
- Smith, T. W., & Greenberg, J. (1981). Depression and self-focused attention. *Motivation and Emotion*, 5, 115-121.
- Trapnell, P. D., & Campbell, J. D. (1999).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distinguishing rumination from refl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284-304.
- Wells, A., & Papageorgiou, C. (2001). Brief cognitive therapy for social phobia: a case seri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9, 713-720.
- Woody, S. R., Chambless, D. L., & Glass, C. R. (1997). Self focused attention in the treatment of social phobia.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Vol.35, No.2. 117-129.

원고접수일 : 2003. 9. 1  
게재결정일 : 2004. 2. 14

## A study for developing and validating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Scale(MSFAS)

Seung ah, Jung

Kyung ja, Oh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Abstract: The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Scale(MSFAS) are described for 425 undergraduate students. This scale was developed to assess the dispositional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which could be a important factor in developing and maintaining social anxiety. The preliminary items were mainly collected from the data of social phobic outpatients' interview sheet, psychological assessment records, the self describing records during cognitive behavioral group therapy, and from the relevant existing social anxiety scale items. Through the factor analysis the final 23 items are selected, and three factors are identified; rumination, other-consciousness, and self-absorption. The Cronbach's  $\alpha$  is .92 which is a favorable level. Investigating the correlation matrix between MSFAS and other social anxiety scales show that this scale can assess the aspect of maladaptive self consciousness more consistently than existing self consciousness scale(SCS).

*Keywords* : Maladaptive self focused attention scale, self consciousness scale, social anxiety

부 록

부적응적 자기초점화 척도의 요인계수 행렬표

문 항	요인 계수		
	1	2	3
<b>반추</b>			
3. 이미 끝나버린 일을 다시 반복해서 생각하곤 한다	.81	.11	-.13
4. 나는 원치 않는 생각을 마음 속에서 지워 버리기가 쉽지 않다.	.80	-.14	.06
9. 속상했던 일은 잊고 싶지만 계속 그 생각을 하곤 한다 .	.71	-.01	.10
5. 더 이상 나와 관련이 없게 된 일들을 종종 떠올리며 생각하곤 한다.	.65	-.02	.08
6. 당혹스러웠거나 실망스러웠던 순간을 떠올리며 많은 시간을 보내곤 한다.	.64	.01	.17
8.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58	.00	.17
22. 나는 과거에 실수했거나 창피했던 기억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생각하는 편이다.	.53	.17	.12
2. 누군가와 어떤 일로 의견이 맞지 않았던 일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다시 생각나곤 한다	.53	.13	-.08
1. 나는 최근에 내가 한 행동이나 말을 다시 떠올리며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38	.35	-.11
<b>타인의식</b>			
16. 나의 표정, 말투, 행동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이다.	-.05	.85	.02
12.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혼자서 이것저것 자주 생각하곤 한다 .	.04	.79	-.04
10.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주었는지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다	.08	.69	-.02
15. 사람들 앞에서 혹시 하지 않아도 될 말이나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이다.	.07	.62	.08
21. 대화할 때 상대방이 내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다.	-.08	.61	.07
11. 타인이 던진 별 의미 없는 말도 자주 되짚어 보는 습관이 있다 .	.28	.48	.07
14. 타인과 얘기할 때 그가 나를 자세히 관찰하고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07	.44	.29
23.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나 자신의 목소리와 내 말을 듣고 있는 타인을 갑자기 의식하곤 한다.	.11	.36	.20
7. 나는 나 자신에 관한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16	.24	.17
<b>자기 몰입</b>			
19.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속이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04	.08	.66
18. 나는 마음이 너무 복잡한 사람인 것 같다	.19	-.00	.58
17. 나에게 관해서 생각을 하다보면 어느새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처럼 느껴지곤 한다.	.20	.00	.56
13. 내 안에는 나 자신을 항상 지켜보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07	.10	.46
20.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남들에게 이해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	.13	.01	.44
고유치	8.56	2.07	1.43
설명변량(%)	37.22	9.00	6.21